

# 조계사 대승전법단, 임진각서 호국영령 추모 및 국군용사 안전평화 기원법회 봉행

✎ 김봉래 | ⓒ 승인 2026.06.21 20:53



서울 조계사 직장직능대승전법단(단장 이등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분단의 아픔이 서린 임진각에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사 대승전법단은 6월 21일 파주 임진각에서 ‘6.25 호국영령 추모 및 국군용사 안전 기원법회’를 엄수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사 신도지원단장 성해스님과 이등원 대승전법단장을 비롯한 단원들, 그리고 육군 1사단 군종법사 설여스님과 국군 장병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현역 장병들의 무사고 안녕을 기원했다.

법회는 삼귀의와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 묵념, 기념사, 축사, 치사,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 등 순으로 장엄하게 진행됐다. 의식 중간에는 영령들을 위로하고 국군장병을 격려하는 축하 공연과 오카리나 연주 등 문화 공연이 더해져 참석자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연출됐다.

조계사 신도지원단장 성해스님은 치사를 통해 스승·부모·이웃·국가 등 불교가 가르치는 ‘네 가지 큰 은혜(四重恩)’를 설하며, 국가와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성해스님은 “안전과 안보가 굳건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며, “호국영령의 희생과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선을 지키는 현역 장병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등원 대승전법단장은 기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염원했다.

1사단 군종법사 설여스님 역시 축사를 통해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깨워주었다. 설여스님은 “분단과 전쟁이 남긴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잊히고 말 것”이라며 “과거의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자리가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승전법단 박경숙 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사를 위해 애쓰고 동참해 준 대승전법단 모든 법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 대중은 실향민들의 아픔이 깃든 임진각 망배단 앞으로 이동해 헌화하며,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과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했으며, 단체사진 촬영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법회의 공덕을 세상에 회향했다.

한편, 조계사 대승전법단은 지난 2022년부터 5년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법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처음으로 현역 국군용사들이 동참해 주목받았다.













김봉래

---

저작권자 © 붓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